

【학계의 동향】

2006년 북한법·통일법제 연구동향

박정원*

1. 총설
2. 분야별 연구성과와 목록
3. 전망

*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상임연구위원

1. 총 설

2006년도 북한법 및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는 기존 연구를 기초로 하여 발전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이른바 ‘사회주의법제’의 강화라는 목표하에 추진되는 기존 법령의 개정과 새로이 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2006년 북한은 미사일실험과 10월 9일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야기하였으나, 북한법 및 통일법연구 분야에서는 꾸준한 연구활동이 전개되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북한의 법제정비는 중요한 분석자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정비하고 있는 법제내용을 보면, 북한의 변화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대체로 북한이 과거 수령의 교시 또는 지도자의 말씀에 근거한 국정운영을 법제도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체제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경제개방과 관련한 법령의 수정은 물론 새로운 법의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과 함께 관련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새로운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개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내외적 법령정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6년도 북한법 및 통일법제연구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내지 성공을 위한 법제지원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북한이 발행한 법령집의 개정판이 나옴으로써 이에 수록된 북한법령에 대한 분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에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2006년의 관련 연구 동향을

개괄해본다. 간략한 연구동향 파악은 앞으로 북한법 및 통일법제 연구를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분야별 연구성과와 목록

북한법 및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동향을 연구발표회, 학술지발간, 연구보고 및 저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월례발표회 활동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는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월례발표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06년에도 다음과 같이 12차례의 월례발표회를 통하여 북한법과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 제101회(2006. 1. 26) : 최은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중국·대만(양안)교류법제와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
- 제102회(2006. 2. 23) : 오 윤(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 제103회(2006. 3. 30) : 조정규(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남북상사중재사례와 중재
- 제104회(2006. 4. 27) : 신영호(고려대 법대 교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이혼문제에 관한 소고
- 제105회(2006. 5. 25) : 김동한(법과인권연구소 소장), 북한에서의 법학의 동향과 법학자들의 연구실태
- 제106회(2006. 6. 30) : 이효원(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남북한 특수

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 제107회(2006. 7. 27) :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2004~2005)
- 제108회(2006. 8. 31) : 신현운(연세대 법대 교수), “북한의 외국투자관련 법제정비의 최근 동향과 평가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북남경제협력법을 중심으로-”
- 제109회(2006. 9. 28) : 송삼현(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남북한 법률의 충돌문제와 관련하여-”
- 제110회(2006. 10. 26) : 윤상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 제111회(2006. 11. 23) : 임복규(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북한 주민간의 상속문제: 쟁점과 해결방안”
- 제112회(2006. 12. 28) : 손희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연구센터 실장), 북한의 회계법제와 최근 동향

2)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통일법 조찬포럼 개최

북한법제연구센터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통일법조찬포럼을 개최하여 법조실무가의 북한법과 통일법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당시 위원장 한기찬 변호사, 현 위원장 구충서 변호사)와 함께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률가 포럼’을 새로이 마련해 2004년부터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한 이래 2006년에는 4차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회수	주 제	성명 및 직위	개최일	장소
제16회	북한의 인권문제: 관련북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2006. 2. 7	대한변협 회의실
제17회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노동법제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	2006. 4. 25	상동
제18회	북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와 내용 및 평가	이백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 6. 27	상동
제19회	一國兩制와 中國—홍콩 간 法律의 衝突 및 調整 - 南北韓 法律의 衝突問題와 關聯하여 -	송삼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2006. 10. 24	상동

3) 「북한법연구」 발간

「北韓法研究」지는 월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정·보완하여 년 1회 발간하고 있다. 1997년 12월 창간호가 나온 이래 제8호(2005. 6. 30)까지 발간되었다. 「北韓法研究」에는 연구논문 외에도 북한의 새로운 법령, 자료 등을 부록으로 소개하고 있어 북한법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에 수록된 논문의 저자와 제목을 살펴본다.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평가
 - 대중용법전 증보판(2006) 발간에 즈음하여-
- 김동한 북한의 법학 연구동향 및 연구자들
- 신영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이혼문제에 관한 소고
- 이효원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 신현윤 북한의 외국투자관련 법제정비의 최근 동향과 평가
 -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북한
경제협력법을 중심으로-

- 한명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남북사법(司法)공조 방안 모색
- 김동균 북한의 인권문제: 관련북한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 최은석 중국·대만(兩岸)교류법제와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

<2006 ‘남북한통일과 법’ 해외학술회의 발표논문(영문)>

- 최종고 남한법과 북한법의 비교와 통일법의 지향
- 신영호 북한 민법의 동향과 통일민법의 모색
- 박환일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현황과 전망

4)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1) 2006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국내)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연구특위와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성공단 법제 인프라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2006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를 배재빌딩(정동) A동 L층 세미나실에서 12월 12일 개최하였다.

※ 위 행사프로그램은 아래 첨부 참조

2006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 장 소 : 배재빌딩(정동) A동 L층 세미나실
- 주 최 : 북한법연구회 /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위
- 후 원 : 통일부

등 록
개회식

□ 제1회의: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와 개성공단의 국제통상법적 조명

- 소주제1: 중국 심천경제특구 초기 법제의 개요와 시사점
- 노동·사회보장·부동산 법제를 중심으로 -

발표자: 유 옥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소주제2: 개성공단사업과 국제통상법적 과제

발표자: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토 론:

□ 제2회의: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

- 소주제3: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상사분쟁 해결방안

발표자: 이주원 박사(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 소주제4: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민사분쟁 해결방안

발표자: 양영희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토 론:

□ 제3회의: 개성공단 출입·체류 및 보험법제 정비

- 소주제5: 개성공단 출입·체류관련 법제정비 방안

발표자: 장기석 검사(법무부 특수법령과)

- 소주제6: 개성공단 보험법제 정비 방안

발표자: 김재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토 론:

□ 제4회의: 개성공단 지원(국내)법제

- 소주제7: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발표자: 오 윤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 소주제8: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발표자: 김광길 변호사(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토 론:

종합토론

폐 회 식

※ 학술대회 내용을 정리하여 「2006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의 논문집」 발간함.

(2) 「2006 ‘남북한통일과 법’ 해외학술회의」(미국 하와이대) 개최(국제)

북한법연구회는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함께 하와이대 로스쿨 및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월 17일 (금) 오전 9시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학술회의실에서 “남북한 법비교와 통일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006 ‘남북한통일과 법’ 해외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통일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한반도 주변국 학자들과 이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우리 통일문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다. 우리 통일의 외적 환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주변국 학자들과의 우리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학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북한법연구회가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함께 처음 개최하는 ‘남북한통일과 법’에 관한 한·미학술회의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위 행사프로그램은 아래 첨부 참조

2006 ‘남북한통일과 법’ 해외학술회의

남북한 법비교와 통일법의 모색

○ 주 최

- 한국측: 북한법연구회 ·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 미국측: 하와이대학 로스쿨 /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 일 시: 2006년 2월 17일(금) 오전 9시

○ 장 소: 미국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학술회의실

09:00~09:30 개회식

사 회: 최종고 교수(서울대 법대)

개회사: 북한법연구회 회장(장명봉)

축 사: 하와이대 로스쿨 학장(Aviam Soifer)

환영사: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손호민)

기조발제: “남북한통일 지향과 남북한 법제개선”

김선옥(법제처장)

09:30~10:50 제1회의: 남북한법의 비교와 북한의 인권문제

사 회: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소주제 1: 남한법과 북한법의 비교와 통일법의 지향

발 표: 최종고 교수(서울대 법대)

소주제 2: 북한의 인권문제와 국제법

발 표: Van Dyke 교수(하와이대 로스쿨)

토 론(한국측): 황해봉 법제관(법제처 행정법제국), 황정의 교수(탐라대), 이재협 교수(경희대 법대)

10:50~11:00 휴 식

11:00~12:20 제2회의: 북한의 민법과 외국인투자법

사 회: 김상용 교수(연세대 법대)

소주제 3: 북한민법의 동향과 통일민법의 모색

발 표: 신영호 교수(고려대 법대)

소주제 4: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현황과 전망

발 표: 박현일 교수(경희대 법대)

토 론(한국측): 최완진 학장(한국외대 법대), 홍승진 담당관(법제처 법제지원교류담당관실), 김서현 변호사(나눔법률사무소)

12:20~12:30 총 평: Glenn Paige 교수(하와이대)

폐회식(장명봉 북한법연구회장 / 손호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
소장)

12:40~오 찬(Aviam Soifer 하와이대 로스쿨 학장 초청)

※ 학술대회 내용을 정리하여 「2006 '남북한통일과 법' 해외학술회의 논문집」 발간함.

(3) 2006년 한국-몽골 학술회의(몽골 울란바타르) 개최(국제)

북한법연구회는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몽골국립법제센터 및 몽골국립대 법대, 몽골과학원, 몽골정부 국토청과 공동으로 7월 7일(금) 오전 8시 몽골국립법제센터(울란바타르)에서 “한국·북한·몽골의 민사법제와 토지법제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006 한-몽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사회주의국가였던 몽골의 체제전환에 따른 민사법제 및 토지법제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장차 해당 분야에서 북한법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몽골의 법제발전에 협력함과 동시에 한국과 몽골의 법제분야에서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열게 되었다.

※ 위 행사프로그램은 아래 첨부 참조

2006 한국-몽골 학술회의 -‘체제전환법제’ 국제학술회의-

한국·북한·몽골의 민사법제와 토지법제의 동향과 과제

○ 주 최

· 한국측: 북한법연구회 /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 /
한국법제연구원

· 몽골측: 몽골국립법제센터 / 몽골국립대 법대 / 몽골과학
원 / 몽골정부 국토청

○ 일 시: 2006년 7월 7일(금) 오전 8시

○ 장 소: 몽골국립법제센터(울란바토르)

08:00~08:30 등 록

08:30~09:00 개회식 사 회: 박정원 (한국 국민대 법대 교수)

개회사: 장 명 봉 (한국 북한법연구회 회장)

환영사: Amarsanaa.J. (몽골국립법제센터 소장)

축 사: Naranggerel.S. (몽골국립대 법대학장)

박 진 호 (몽골주재 한국대사)

09:00~10:40 제1회의: 한국·북한·몽골의 법제발전과 민사법제

사 회: Mungkhjargal.T. (몽골국립대 법대 민사법 주임교수)

소주제 1: 몽골의 정치체제의 변화와 법제개혁

발 표: Chimid.B. (몽골국립법제센터 학술비서)

소주제 2: 한국의 법제개혁과 법치주의 실현

발 표: 장명봉 (한국 북한법연구회 회장, 국민대 법대 북한
법제연구센터 소장)

소주제 3: 몽골 민법의 변화와 과제

발 표: Baasan.L. (몽골 오토공텡게르대학교 부총장)

Naranchimeg.D. (몽골 오토공텡게르대학교 총장)

Tsolmon.D. (몽골국립법제센터 민사법 부장)

소주제 4: 북한 민법의 동향과 과제

발 표: 신영호 (한국 고려대 법대 교수)

토 론: 박환일(한국 경희대 법대 교수) / 배병호(한국 국민
대 법대 교수) / 김서현(한국 나눔법률사무소 변호
사) / 엄재상(아시아법연구소 사무국장, 변호사)

10:40~10:50 휴 식

10:50~12:20 제2회의: 한국·북한·몽골의 토지법제

사 회: 최종고 (한국 서울대 법대 교수)

소주제 5: 몽골 토지법제의 동향과 과제

발 표: Batsukh.Sh. (몽골정부 국토청장)

소주제 6: 한국 토지법제의 동향과 과제

발 표: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소주제 7: 북한 토지법제의 동향과 과제

발 표: 김상용 (한국 연세대 법대 교수)

소주제 8: 몽골 토지법제의 이행: 사법집행

발 표: Dorjgotov.A. (몽골최고법원 판사)

Byambaa.L. (몽골최고법원 판사)

토 론: 배진수(한국 한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권은민
(한국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임복규(한국서울
지방법원 판사) / 이효원(한국대구지방검찰청검사)

12:20~12:50 제3회의 (보충회의)

사 회: 김영철 (한국 건국대 법대 학장/전국법과대학 학장협

의회 회장)

소주제 9: 러시아 민법의 동향과 과제

발 표: Klimovich.A.V. (러시아 국립 이르쿠츠크대학교 법대
민사법 주임교수)

소주제 10: 중국토지법제의 동향과 과제

발 표: Khaitan (중국 내몽골대학교 법률연구소 부소장)

토 론: 전택윤(한국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 손정락(한국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12:50~13:00 폐회식

폐회사: Amarsanaa.J. (몽골국립법제센터 소장)

장 명 봉 (한국 북한법연구회 회장)

13:00~ 오찬

※ 학술대회 내용을 정리하여 「2006 한·몽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발간함.

5) 각 기관별 발간자료 목록

(1) 법제처

법제처는 남북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통일관련법령에 대한 연구를 도모하고,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해당 실무자들에 유용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발간된 자료와 목록을 살펴본다.

먼저 「2006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366페이지)를 발간하였다. 6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북한의 체제와 관련한 법령을 우리의 법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 연구자와 연구제목은 다

음과 같다.

- 장명봉 남북한 헌법체계 비교와 헌법통합 방향
- 정영화 북한 헌법의 공권력 집행체계 및 지방자치제에 관한 연구
- 박정원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에 대한 연구
- 박정원 북한의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대한 연구
- 김성욱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비교·검토
- 최은석 북한의 공민등록법과 남한의 주민등록법 비교·분석

다음으로 남북법제실무자료집으로 「남북법제연구의 성과와 과제 - 1990년 이후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301페이지)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남북법제 관련 연구결과물의 목록과 그 주요내용 등을 수록하여 북한법 및 통일법제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법무부

법무부는 특수법령과를 설치하여 남북법제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및 정부의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에는 다음의 연구분석자료를 발간하였다.

먼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2006. 12)이다. 북한에서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을 분석하면서 개성공단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비교 분석하여 이 법 이해를 돕고 있다.

다음 동리곤 저,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편역, 「중국 내지

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2006. 7)(877페이지)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중국 내지와 홍콩간의 법률충돌시 해결방법과 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구체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3)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법과 남북관계법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시도해왔다. 2006년에는 「북한의 형사법」(법원행정처, 2006. 12)을 발간하였다. 여기에서 2004년 개정된 북한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판사들로 구성된 통일법연구모임의 연구성과를 모아 「통일사법정책연구(1)」(법원행정처, 2006. 12)를 발간하였다. 연구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양영희 판사 북한의 법적지위
- 조의연 판사 남북한 간의 관할권과 준거법 결정기준
- 신한미 판사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 윤상도 판사 남북한 주민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법적문제
- 정창호·염우영 판사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경매관련 법제 정비 방안
- 김영식 판사 북한 형사법 및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발생한 형사사건처리절차 연구
- 신진화 판사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 부양의무자, 상속을 중심으로
- 이주원 판사 법조인력에 관한 독일의 통합사례와 북한의 현황

- 이규창 조사위원 탈북자의 법적 지위
- 안소율 사무관 북한의 재판제도

(4)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분야의 주요과제로서 북한법과 통일법에 대한 분야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연구지원 활동을 보여 왔다. 초기의 기본법분야에 대한 분석을 넘어 최근 북한법령의 정비에 따른 연구와 함께 남북통합에 대비한 법령정비 및 입법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2006. 10) (180페이지)
- 박정원 북한의 토지제도 연구(2006. 11)(234페이지)

6) 북한원전 자료 제공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북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입수하여 법학자와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 북한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북한법연구회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수집해 온 북한법령들을 내용상 부문별로 분류하여 (대체로 우리 법전의 분류체계에 준하여)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을 2005년 1월 15일 출간한 데 이어 2006년 그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 법령집에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들과 남한과 관련성이 많은 시행규정 등 총 193개 법령을 수록하였다(헌법을 포함한 법률이 모두 132개, 시행규정이 모두 61개). 김정일체제하에서 추진된 법제정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법

령들을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를 하고자 하는 본회 회원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에게도 이 「북한법령집」에 수록된 법령 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북남 경제협력법, 외국인투자관련 개정 법률, 개성공업지구 관련 최근 제정 하위규정도 제공해 주었다.

특히 2006년 6월, 회장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증보판을 수집하여 북한의 입법동향을 분석하여 북한법연구회 제107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2004~2005)”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11월에 장명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북한법연구회, 2006)을 발간하고 앞으로 이 자료도 필요한 법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7) 남북한 법분야 학술교류협력 추진

북한법연구회 회장(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은 지금까지 총 8차례 남북학술교류를 추진해 오면서 북한의 여러 학자들을 만나 학술부문상봉토론회에서 남북간 학술교류협력문제를 논의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명봉 회장은 2002년 6월 금강산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제2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남측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북한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한석봉 소장을 만나 남북 학술분과 모임에서 남북의 법학자들도 민족화해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하여 법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2005년 9월에는 중국 심양에서 있는 국제고려학회 학술행

사에서 북한 사회과학원의 한석봉 법학연구소장을 만나 법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경협법제 관련 학술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하여 남북법률가들간의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속적인 법제분야 남북학술교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 전 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법 및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방법과 범위에 대해 다양하고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정책적 입장에서 접근되었던 이 분야의 연구는 이제 보다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 배경은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진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법과 통일법제에 대한 분석이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과 학구적 열정에 머무는 연구가 아니라 실무적 정책적 접근에 의한 현실적 필요에 의한 연구가 보다 확대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술적 차원과 실무적 차원의 협조와 공동연구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이른바 북한법, 남북관계법, 통일관계법 등이 상호 연관성을 깊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영역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와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점차 확대되는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법 및 통일법에 대한 연구자와 실무자의 배가된 노력이

요청되는 시기에 2006년도 북한법 및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개관과 목록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